

## 로컬리티 재구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

김용철\* · 안영진\*\*

###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Reconstructing Process of Locality

Yong Cheol Kim\* · Young-Jin Ahn\*\*

**요약** : 이 논문은 근래에 들어와서 다양한 변화의 압력을 받아 온 지역사회의 대응 양상 및 전략 그리고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로컬리티'(locality)의 재구성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광주·전남의 로컬리티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리티를 둘러싼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가 지닌 이론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로컬리티를 국가적 그리고 지구적 수준의 영향력과 로컬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 간의 상호작용이 생성해 낸 구체적 결과물로 규정하고자 한다. 즉, 로컬리티를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다중적 스케일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근간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구축물로 파악하였다.

**주요어** : 사회경제적 변화, 지역사회, 로컬리티, 재구성 과정

**Abstract** : Regional communities have recently tried to change themselves in order to cope with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Giving attention to their strategic responses as well as consequences as a result of their countermeasures,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process of locality reconstruction in a dynamic and comprehensive way. To achieve this purpose, after figuring out the previous studies'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limitations, we suggest that locality should be understood as a outcome of the mutual interactions between local, state, and global scale networks.

**Key Words** : socio-economic changes, regional community, locality, reconstructing process

### 1. 문제의 제기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지역(local)은 다른 국가의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변화의 압

력에 직면해 왔다. 대체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러한 변화의 압력은 시간적으로 동시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구조적이며 반(半)영속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압력들은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43395)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imyc@jnu.ac.kr)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jahn@chonnam.ac.kr)

과거 우리의 지역사회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으로, 첫째 정치적으로는 산업사회 시기의 중앙정부 중심적이고 위계적이며 권위적인 관계의 해체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계적 민감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으며, 셋째 사회문화적으로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생활패턴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넷째 공간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세계사회의 새로운 단위로 등장시키고 있다. 요컨대 거대한 변화의 압력들은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도전과 시련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역사회의 새로운 발전적 재구성을 위한 기회를 뜻하기도 한다.

이 글이 주목하는 점은 이러한 변화의 압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양상 및 전략 그리고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재구성 과정이다. 지역사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 모든 지역사회는 나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 대해 모든 지역사회가 항상 동일한 내용과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이슈와 쟁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변화의 압력을 둘러싼 지역 내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행위자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상호작용을 주조해 낸다. 그 결과 지역의 지배적 사회연합의 구성과 성격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책적 대응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최종적 귀결은 지역사회의 공간적 재구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간적 재구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은 다른 아닌 '로컬리티'(locality)이다. 로컬리티 연구는 장소(place)의

공간적 특성(spatial properties)이 인간의 행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장소는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의 거주지이자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곳인 까닭에 집단적 차원에서 동일한 장소적 경험은 나름의 정서적·심리적 유대와 정체성의 생성으로 이어지며, 로컬 내부의 관계질서를 형성시키고 국가와 로컬 간의 질서 및 로컬과 로컬 간의 관계 양상을 제도화하기도 한다.

1980년대 중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로컬리티 연구는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며, 지역사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데 적잖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리티 연구는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혼란과 불명료성 그리고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론적 위상(일반이론과 사례연구 간의 대립) 등과 관련하여 적잖은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로컬리티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를 변화의 압력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변화의 구체성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모든 지역사회가 자율성과 특수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진화 혹은 수렴해 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간의 차이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데 대단히 취약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연구는 로컬리티의 개념을 매시(Massey, 1993)가 제시한 '사회적 관계망'(nets of social relations)이라는 구성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개념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험적 연구에 기초한 일반이론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로컬리티를 대내외적 변화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는 집단적 행위체로 그리고 유동적이며 진화하는 사회적 질서체로 상정하고 접근하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시각은 지역사회의 상대적 자율성을 전제하기 있기 때문에 이론적

으로 지역사회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게다가 향후 지역사회의 발전적 재구성을 위한 지역민들의 정책적 노력과 그 함의를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전개시키려고 한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로컬리티를 둘러싼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로컬리티 연구가 지닌 이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뒤이은 제3장에서는 향후 광주·전남 지역을 사례로 로컬리티의 지속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가 지닌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개념과 분석틀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동시에 본문에서 다루어진 내용의 이론적 함의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2. 로컬리티에 관한 선행 연구의 비판적 검토

로컬리티 연구는 1980년대 영국의 사회경제적 재구조화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장소의 역할과 공간적 변이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0년대 서구학계는 다양한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경험적 연구를 시도해 왔다. 해외에서 로컬리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학문분야에서 로컬리티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켜 오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각 연구자들이 사용해 온 로컬리티의 개념은 매우 상이하며, 이론적 엄밀성도 결여한 상태이다. 그 결과 로컬리티 연구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크게 미흡하였다.

### 1) 해외 선행연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로컬리티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영국에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공간적 변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고조에 따른 것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 사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실업률의 증가, 직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요약되는 뚜렷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동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절정에 달하였다. 특히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표현되는 1979년 이래 보수당 정권의 대대적인 개혁정책은 영국의 지역사회에 지대한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이는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와 고용이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기존 공업도시 및 산업 지역들은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었다. 이와 달리 첨단산업과 금융 및 재정, 전문직 서비스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영국 남동부 지역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나타났으며, 해안지역 등에서는 고급 주택 및 오피스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들은 학술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즉 포스트포디즘과 유연적 전문화의 등장, 신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의 확대 등에 따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공간적 분화와 변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크게 고조시켰다.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변화들, 예를 들어 탈물질주의 문화의 등장, 계급정책의 급속한 후퇴, 소비사회의 대두 등은 공간적 차원과는 무관하게 논의되었으며, 지역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이전에 몇몇 지역에서의 다양한 생활양상의 변화가 사회이론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무엇을 왜 어떻게 고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즉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 일상

생활의 제반 변화를 관찰하고, 그 상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대 중반 영국 정부는 경제사회연구심의회(ESRC: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를 통하여 ‘도시 및 지역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CURS: the Changing Urban and Regional System), ‘사회변화와 경제생활에 관한 연구’(SCEL: Social Change and Economic Life) 그리고 서섹스(Sussex)대학교의 ‘경제개편 및 사회변화와 로컬리티’에 관한 소규모 연구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연구를 기획·추진하게 되었다(Duncan and Savage, 1981). 이러한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영국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영국의 각 지역에 나타나는 변화양상 및 공간적 차이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결과를 규명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적 그리고 국지적(지방적) 차원에서 특히 경제 재구조화(구조조정)의 영향을 탐색하고, 아울러 다양한 사회 및 정치조직을 통하여 로컬리티의 발전을 가능케 하거나 제약하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 역할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Cooke, 1989).

구체적으로 CURS와 SCEL의 연구는 각각 6~7개의 단위 연구팀을 구성하여 복수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sup>1)</sup> 이들 연구의 조사 대상은 영국 전역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현저한 변화를 겪었거나 겪고 있던 대표적인 도시 및 (공업)지역이었다. 첫째, CURS의 연구는 잉글랜드 전역에서 7개의 지방노동시장을 선정하여, 각 노동시장지역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생활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비록 이 연구는 각각의 로컬리티가 지닌 부차적인 문제들(예를 들어 계급구조, 역사적 문화, 성차관계 등)도 주요 경제·정치 부문과의 연계 하에 검토하였으나(Pudup, 1988), 외생적이고 구조적 변수를 강조함으로써 주로 경제 및 노동시장에 관한 조사 분석

이 연구의 중점이 되는 다소 제한적인 것이었다. 둘째, SCEL의 연구는 CURS의 연구 경향과 유사하게 로컬리티를 일종의 잔차변인(residual variable)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로컬리티 연구에 대하여 다소 회의론적(agnostic) 시각을 보여 주었다. 셋째, 서섹스대학교의 연구는 CURS와 SCEL의 연구 경향과 달리 외부 변화의 압력에 따른 지역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상이한 지역적 공간 속에서 외부의 변화 압력에 따른 제반 사회경제적 변동이 각각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가를 고찰하였다(森川 洋, 2004: 168-9).

이처럼 영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로컬리티 연구는 영국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그 공간적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사회변동을 지역 혹은 국지 차원에서 그 실상을 파악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여러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은 본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논제이기도 하다(Danielczyk *et al.*, 1993; Cloke *et al.*, 1999).

첫째, 로컬리티 개념<sup>2)</sup>의 모호성이다. 로컬리티에 관한 연구들은 국지적(지방적) 수준과 그 사이 그리고 좀 더 큰 스케일(scale)에서 사회경제적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로컬리티의 개념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로컬리티는 그 개념적 정의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다의적이고 불명료하였다(Cloke *et al.*, 1991: 164). 예를 들어 학문적 관심사 및 분석 대상에 따라 로컬리티는 ‘경험의 스케일’(Taylor, 1982) 혹은 ‘지역의 정치형태’(Agnew, 1987), ‘지역적 계층화의 시스템’(Urry, 1983), ‘노동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 관한 장소’(Massey 1984)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 집단적 정체성의 핵심적 토대’(Cooke, 1985)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그 결과 당초 연구 의도 혹은 기대와는 달리 로컬리티 개념은 학자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이미 제시된

로컬리티 개념과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따라서 로컬리티 연구에 대한 통일적 이해를 공유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Duncan and Savage, 1991).

둘째,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가 지닌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지역 자체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론적 편협성(parochialism)이다(Massey, 1993: 144-5). 로컬리티 연구의 등장은 지나치게 이론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기존 이론적 시각들(예를 들어 수리적 응용과학 및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학문적 반성 혹은 로컬의 특수성(specificity)에 대한 이론적 둔감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서 등장하였다. 그 결과 로컬리티 연구는 장소(place)로서의 로컬 그리고 로컬 고유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편협한 경향성을 띠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는 로컬리티 연구가 ‘개별 장소의 특수성’(uniqueness of individual places)이 지역 간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신지역 지리학(new regional geography)의 이론적 전제를 철저히 신봉한 결과였으며, 이에 따라 로컬리티 연구는 일반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경험적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몰두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Smith, 1987; Cochrane, 1987). 실제로 경험적 연구들은 로컬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구학적 특성에 의존한 지역 간의 경제적 차이를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이를 국가적 혹은 국제적 층위와의 관계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로컬리티 연구는 로컬의 특수성 혹은 우연성을 분석하는 사례연구에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로컬의 특수성과 고유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로컬의 변화 혹은 변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뿐만 아니라 이론적 편협성은 로컬리티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기술(description)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낳았다. 물론 이른바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 이론화의 전제 조건

이긴 하지만, 기술 작업이 단순히 현실에 대한 묘사에 그칠 경우 로컬에서 발생하는 현상 자체가 갖는 현실적 의의와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도 어렵게 된다(Massey, 1993: 146-8). 이러한 관점에서 쿡(Cooke, 1990)도 로컬안의 행위자 효과(internal agency effects)와 로컬 밖의 외생적 변수 간의 이론적 개념화 작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셋째, 기존 연구는 로컬리티를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즉, 로컬리티를 주어진 것(所興)으로, 무엇보다도 외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실체로 파악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기존 로컬리티 연구는 외부적 변화 및 자극의 결과로 나타나는 로컬의 공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로컬을 일종의 내부적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지역 공동체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로컬리티는 내부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상존하는 역동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되어, 로컬의 내부적 갈등과정과 능동적 대응전략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소홀히 다루어졌다. 즉, 개념적으로 로컬리티의 상대적 자율성, 정책적 선제성 혹은 능동성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로컬리티는 사회변화 과정에 관한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되거나 경제적 재편과 그 국지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에 그치게 되었다(Newby, 1986; Duncan and Savage, 1989).

## 2) 국내 관련연구의 검토

국내의 지역연구가 해외의 로컬리티 연구의 직간접적인 영향 속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당초 국내 지역연구는 해외의 연구동향과는 무관하게 시작되었다. 이는 대체로 두

가지 서로 다른 학문적 경로를 거쳤는데, 그 하나는 학문 분야별로 관심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서울학과 강원학, 제주학, 인천학, 부산학, 호남학 등 ‘지역학’의 이름 아래 전개되었다.

먼저 19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지역연구는 연구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이는 주로 역사학과 언어학·문학·정치학 등에서 등장하였는데, 역사학의 경우에는 ‘전국사의 구성단위로서의 지방사 연구’라는 전통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지역정체성’ 혹은 ‘일정한 독자성’을 지닌 지방사로 그 분석의 초점이 이동하였다. 또한 방언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언어학의 경우에는 연구의 시각이 당초 ‘특정 지역의 사투리’에 대한 연구에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체계를 가진 언어’ 및 ‘지역 언어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변용되어 갔다. 문학의 경우에는 ‘중앙의 눈’이 아닌 ‘지역의 눈’으로 지역문학의 ‘독자적 담론’을 모색하는 작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소수성과 타자성 그리고 주변성을 비판하고 지역적 담론의 실천과 대항 그리고 저항이라는 전략적 실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정치학의 경우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종철·최장집 외, 1991; 최영진, 1999).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지구화 현상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도래라는 외적 요인과 맞물려 이른바 지역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주자는 ‘서울학’이었다. 서울학의 경우에는 1993년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의 출범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서울학은 서울지역의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서울의 도시적 정체성을 규명하고 ...(중략)... 서울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문”으로 이해되었으며(유승희, 2010), 역사학과 지리학·정치학·사회

학·경제학·도시계획학 등의 학제 간 연구형태를 띠었다(전우용, 2002). 이후 강원학, 제주학, 인천학, 부산학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호남학 등 특정 지역의 이름을 딴 지역학들이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다. ‘강원학’은 강원개발연구원이, ‘제주학’은 제주도학회가, ‘인천학’은 인천학연구원이 그리고 부산학은 부산발전연구원과 신라대학교가 중심이 되어 각 지역의 역사를 비롯하여 문화와 지리·경제·언어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학술적 연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김영화·김태일, 2012).

이들 연구는 지역의 문제를 논제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모든 지역은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는 전통 지리학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지리·언어 등에 집중되었고, 궁극적으로 지역의 고유성 및 정체성을 밝혀내는데 집중되었다. 즉,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학의 내용과 방법론에 있어 독자적인 이론적 시각이나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자료수집과 사례연구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학교의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팀은 그동안 해외에서 제안·진행되었던 로컬리티 연구를 재조명하게 되었다. 연구팀은 개념적으로 주변화되고 타자화된 로컬의 개념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개념으로 복원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로컬리티의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문제를 진단 처방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실천하는 종합학문으로서 이른바 ‘로컬리티 톨리지’(localitology)의 정립이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왔다.

그 첫 번째의 이론적 성과가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과 “탈근대·탈중심의 로컬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c)이었다. 전자는 다양한 로컬리티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한 연구서로, 로컬리티를 국민국가의 종속적 하위 분석단위가 아니라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층위 속

에서 나름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닌 새로운 분석 단위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비해 후자는 지구화를 ‘탈근대’와 ‘탈중심’의 공간적 재구성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보고, 중앙집권·제도와 통치·포섭과 배제에 기초한 국가공간과 대비시켜 로컬을 분권과 참여·일상과 거버넌스·저항정체성과 대안적 가치가 모색되는 선택적 존재로 간주하고, 로컬리티 연구의 실천적 함의를 강조하였다. 요컨대 로컬리티 연구는 국가 및 자본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와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로컬의 시각에서 자율적 공간 재구성을 탐색 실천하는 종합학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시각에 기초하여 상기 연구팀은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연구 조사를 진행시켜 왔다. 첫째, 로컬의 ‘장소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b)은 ‘장소성’을 주제로 삼아 국가 중심주의적 근대성에 의해 강요되고 특징 지워진 로컬리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분석한 것으로, 로컬의 장소성은 “담론과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고안물”이며, 그것은 ‘기억의 정치’ 및 ‘재현의 정치’라는 권력관계가 작동하는 ‘선택과 배제’의 산물로 파악하였다. 또한 “로컬의 문화지형”(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a)은 로컬에 새겨진 역사적·문화적 기억과 흔적에 대한 탐사 및 분석을 통해 로컬은 “정체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 삶의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실천적 행동이 중층적으로 접합되는 장”으로 접근하였다. 나아가 “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d)은 인간의 장소경험이 어떻게 로컬 정체성의 형성·변형·굴절시키는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즉 로컬리티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진정한 장소경험에 기반을 두지 않는 로컬리티는 인간과 장소 간의 괴리를 초래하여 급격한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국가-로컬 혹은 중심-주변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포섭과 저항의 로컬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g)이다. 이는 국가 중심주의에 의해 배태된 국가(중심)-로컬(주변) 관계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섭과 저항’이라는 역학관계로 분석한다. 또한 “선망과 질서의 로컬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b)는 국가와 자본이 ‘선망과 질서’라는 감정 기제를 이용·유포하여 로컬 사람들의 소외와 배제를 구조적으로 조성·유지해 왔음을 분석한다. 그리고 “로컬의 일상과 실천”(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a)은 국가와 중심의 시각에서 줄곧 배제되어 왔던 로컬의 탈중심적 일상에 주목한다. 즉, 로컬에서 벌어지는 탈중심적 갈등은 단순 반복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을 통해 나름의 변화와 조직화에 의거하여 갈수록 더 복잡다단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로컬 형상의 변화 및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들 연구는 로컬의 주변성과 타자성을 극복하는 전략적 지점으로서 대안적 로컬리티 모색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로컬의 주체화를 제안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로컬 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 및 갈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차이와 차별의 로컬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e)는 이른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 생애 해 내는 이주(migration)와 이산(diaspora)이라는 이동성의 가속화가 궁극적으로 로컬 수준에서 성적·문화적·종족적·인종적 갈등, 나아가 공간적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차별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시민권의 강화와 트랜스(trans) 로컬의 연대를 제안한다. 이에 반해 “이주와 로컬리티의 재구성”(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c)은 초국적 이주 및 이동성은 로컬과 글로벌의 직접적인 대면을 의미하며, 새로운 형태의 횡단적·혼종적 제도와 정치·사회·문화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분석한다. 따라서 지구화의 맥락 속에서 로컬은 정체성과 행위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확립된 단위가 아니라 전 세계의 영향이 관통하는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연구가 개항장 및 창조도시에 대한 사례 분석이다.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로컬리티”(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h)는 동아시아의 개항장 도시를 대상으로 개항이 로컬리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즉 타자와의 조우가 불가피한 개항장 도시는 개항이 로컬리티의 변화와 변모를 추동하는 내부 및 외부 기제로 작동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연구팀은 “창조성과 도시”(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f)에서 이른바 창조도시를 지구화가 초래하고 있는 도시공간의 변형 및 도시 간의 경쟁 심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창조도시의 담론과 문화, 창조도시의 공간질서 그리고 창조도시 간의 경쟁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한민족문화연구소의 연구 성과들은 국내 로컬리티 연구의 활성화와 학문적 체계화에 지대하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이들 연구는 로컬리티를 유동적이며 가변적인 존재로 그리고 나름의 자율성과 선제성을 지닌 능동적 행위주체로 상정하고 접근하였다. 이는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에서 보여 주었던 수동적이고 주변적인 존재로서의 로컬이 아니라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위 주체자로서의 로컬로 시각을 재조정함으로써 로컬리티 재구성의 역동적 과정에 대한 관찰 및 이론화를 가능케 하였다.

둘째, 이들 연구는 로컬리티 연구의 이론적 체계화는 물론이고 실천 및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로컬의 근원적 본질과 내재적 가치를 탐구하였다.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가 대체로 로컬의 자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로컬리티의 인문학”을 모토로 하여 인간생활의 터전으로서의 로컬의 복원을 위한 ‘대안적 로

컬리티’의 모색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로컬리티 연구를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적잖게 기여하였다.

셋째, 이들 연구는 ‘탈근대’와 ‘탈중심’이라는 시각에서 기존 이론적 성과들을 결합시키고 연구의 소재를 새롭게 발굴하여 연구 대상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치중하여 로컬의 정치경제적 변이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들은 소수성과 타자성·주변성·차이와 차별·선망과 질서·창조성과 창조도시·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등 다양한 인문학 지점에서 로컬리티를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나름의 이론적 체계와 독자적인 내용을 갖춘 종합학문으로서 로컬리티학의 정립에 반드시 성공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연구물들이 여전히 로컬리티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탐색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는 영국의 로컬리티 연구들이 지녔던 방법론적 한계점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제시한 연구 시각 및 방법에 있어서도 일정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분석 단위인 로컬의 개념 및 위상에 대한 모호성이다. 우선 연구팀이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로컬의 단위는 지역·도시·산업단지·시장 및 쇼핑센터·소규모 마을 공동체·초국적 네트워크 등 다양하다. 즉, 로컬이 행정단위를 말하는지, 지리적 경계를 뜻하는지, 의미의 공간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모두 것을 포괄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로컬의 타자성·소수성·주변성을 강조함으로써 로컬을 국가나 자본에 대한 저항의 공간으로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로컬이 절대적 자율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되어 로컬을 자칫 ‘신성화’하거나 ‘낭만화’시킬 수 있으며, 국가-로컬 및 자본-로컬 간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부각시켜 국가-로컬 및 자본-로컬 간의 타협과 협력의 가능성을 개념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로컬리티에 대한 개념적 상충성이다. 즉, 로컬리티가 선형적 존재인지 아니면 사회적 구성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즉, 연구팀이 사용하는 로컬리티의 개념에는 ‘존재론’과 ‘구성론’이 혼재되어 있다. 존재론적 관점의 로컬리티는 국가나 글로벌과 대립되는 그리고 국가와 글로벌의 영향력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선형적 존재로 개념 정의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구성론적 관점의 로컬리티는 다중적 스케일이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의미체계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존재론적 관점은 로컬리티 연구의 실천적 함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로컬이 국가와 자본에 저항하는 단일한 행위주체로 상정되고 있으며, 구성론적 관점은 로컬리티 연구의 이론적 체계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로컬을 다층적 맥락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닌 다양한 행위자들의 집합체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상충성은 로컬리티 연구에 있어 적잖은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체계적이고 동태적인 이론적 분석들의 미흡 혹은 부재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나, 제시된 분석들은 ‘부분적’(partial)이거나 ‘정태적’(static)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달리 말하면, 많은 연구들이 로컬리티의 재구성을 지구화 및 지구화가 초래한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지구화가 중요한 변인인 것은 오늘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로컬리티 재구성을 촉발하고 강요하는 요인은 한층 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사회의 등장과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으로 인한 민주사회의 도래 등이 그것이다. 또한 로컬 외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로컬 내부에서 발생하는 변화도 로컬리티 재구성의 촉발 변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로컬의 내·외부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로컬리티 재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로컬리티 연구는 지구화 이외의 타 외적·내적 요인들과 로컬리티가

로컬의 현실에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변화되고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취약하다.

### 3. 로컬리티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

로컬리티 연구에 있어 가장 긴요한 것은 기존의 ‘로컬리티’라는 용어의 개념적 모호성과 다의성을 극복하기 위한 재개념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개념적으로 내적 일관성 및 분석 능력을 장착시키고, 둘째 기존 로컬리티의 개념이 안고 있는 높은 수준의 추상성을 구체적 현실분석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고, 셋째 변화 압력이라는 외생적 변수와 지역 내부의 내생적 변수 간의 연계성을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향상시키는 분석적 개념 및 동태적 시각을 개발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1) 로컬리티의 개념 및 위상

로컬리티 개념은 공간결정론(“장소가 차이를 만든다”)과 구조결정론(“장소는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사고를 조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개념이었다(Savage *et al.*, 1987; Duncan, 1989; 구동희, 2010: 511).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상이한 두 시각을 적절히 접합시키고 결합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여전히 ‘지역의 고유성’ 및 ‘지역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 장소에서 발현되는 공간적 우연성에 주목하여 로컬의 변이를 파악한다. 이는 로컬이 지닌 공간적 고유성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나, 로컬리티의 재구성에 대한 이론적 인과관계의 분석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부 연구들은 지구화에서 발현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탈중심’ 혹은 ‘탈국가’의 관점

에서 로컬의 변이를 파악한다. 이는 모든 로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과적 관계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로컬리티 재구성 과정에서 로컬 자체가 지닌 고유성이 경시 혹은 무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구성론적 관점에서 로컬리티를 ‘장소’와 ‘관계’가 빚어내는 특정 공간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개념 정의한다. 즉, 로컬리티란 삶의 터전으로서 구체적 공간(local)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들’의 교차 및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물이다(Massey, 1991; Massey, 1993). 다시 말해 로컬리티는 국가 및 세계체계 내에서 상대적 혹은 관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특정 장소(로컬)의 사회문화적 인식 및 정치경제적 특성을 의미하며, 이들은 로컬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Massey, 1993: 149; 박규택, 2009: 119).

비록 로컬리티가 구체적 공간을 전제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구성적 요소를 가정하는 까닭에 로컬리티를 단순히 지리적 공간의 관점에서 경계지을 수 없다. 오히려 로컬리티는 스케일(scale)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박배균, 2009; 구동희, 2010). 스케일의 관점에서 로컬리티는 규모(size)와 층위(hierarchy) 그리고 권력관계(power relationship)의 차원에서 이해된다(Herod, 2011; 구동희, 2010: 514-5). 첫째, 규모라는 공간적 스케일의 차원에서 로컬리티는 국가보다 작은 규모의 공간 및 장소를 의미한다. 글로벌 스케일에 비해 국가 단위의 스케일은 작은 것이며, 국가 단위의 스케일에 비해 로컬 단위의 스케일은 상당히 작은 것이다. 따라서 로컬리티 연구는 국가 스케일 아래의 지역과 도시,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단위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sup>3)</sup>

둘째, 층위의 차원에서 로컬리티는 국가보다는 낮은 층위에 속하며, 국가는 국제사회보다는 낮은 층위에 속한다. 이는 내용적으로 ‘로컬한 것’(the

local)을 ‘내셔널한 것’(the national)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내셔널한 것’ 역시 ‘글로벌한 것’(the global)으로 병치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층위에서 발생하는 변화의 압력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수준의 변화는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성격 을 지니고 있다면, 국가 수준의 변화는 해당 국가의 지역사회에 국한되는 제한적 특징을 띠며 로컬 수준의 변화는 해당 지역사회 자체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권력관계의 차원에서 로컬리티는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경제적 진공상태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발생하는 힘과 영향 속에서 존재한다. 힘 혹은 영향력의 관점에서 로컬리티는 국가 및 글로벌 스케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이 있으나, 로컬에 토대를 둔 다양한 실천들(예를 들어 풀뿌리 사회운동)은 종종 국가 혹은 글로벌이라는 상위 층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스케일 간의 권력관계는 일방적 혹은 수직적인 것이기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다중 스케일’(multi-scalar)적 과정으로 이해된다(황진태·박배균, 2014).

요약하면, 로컬리티는 국가적 그리고 지구적 수준의 영향력과 로컬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 간의 상호작용이 생성해 낸 구체적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로컬리티는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다중적 스케일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근간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구축물인 것이다.

## 2) 이론적 분석틀

로컬리티는 광범한 사회적 층위들과 연계를 지니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재형성해가는 잠정적이고 유동적인 존재이다(Massey, 1993: 149). 따라서 로컬리티의 구성 및 재구성은 다중적 스케일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근

간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사회구조(localized social structure)이자 로컬 차원의 사회구조적 이해관계가 제도적 차원으로 구체화된 로컬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다(Cox and Mair, 1989; 1991). 달리 표현하면, 로컬리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우선 행위자적 차원에서 내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집합적 행위체이며, 다음으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나름의 규범과 권위구조를 지닌 사회관계적 질서체(로컬 거버넌스)이다.

이렇게 볼 때,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은 크게 다양한 층위에서 발현되는 구조적 압력과 로컬의 사회적 관계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로컬 거버넌스 간의 함수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외부의 변화 압력에 의해 촉발된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은 다양한 개별 혹은 집단 행위자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거치며, 그 결과는 행위자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인식과 가치·태도·사회적 관계의 변화 및 거버넌스 차원의 사회관계적 질서로 구체화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역사성(예를 들어 문화·전통·규범·집단적 정체성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대체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림 1은 외부의 변화 압력에 당면하여 지역사회들의 로컬리티

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선 로컬리티를 둘러싼 국가 및 글로벌 스케일의 영향력 혹은 변화 압력은 대체로 세 가지 차원으로 파악된다. 첫 번째로 변화의 압력은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의 확산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선진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정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와 비판운동의 활성화 및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증가(Nye, 1997) 그리고 ‘제3의 민주화 물결’(the third wave)로 불리는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정치적 민주화 현상은 민주주의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내부적 변화압력을 낳았다(Huntington, 1991). 국가는 정책 결정과정의 개방을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장려해야 할 시대적 압력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장려해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구조적 압력에 당면하였다. 이로 인해 나타난 가장 가치적인 현상은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화되어 왔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정치구도는 더욱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지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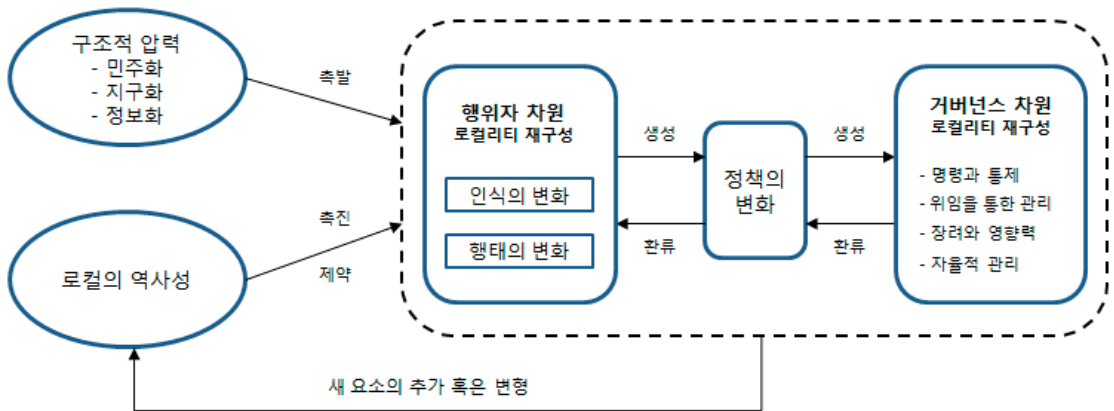


그림 1. 이론적 분석틀: 로컬리티의 재구성

민 간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지구화 현상의 심화이다. 지구화는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사람, 상품, 사고의 교류가 그 규모 및 속도에 있어 급속도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지구화는 국가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자 간의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과 질서가 세계시장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내 시장의 개방 압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이로 인하여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 확보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다시 지방정부를 포함한 지역사회 집단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혁신의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Nye, 1999: 6-7).

세 번째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등장이다. 정보화의 가속화는 지역민의 시공간적 개념은 물론이고 생활패턴과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 인간의 내면세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는 '관여적 시민'(engaged citizenship) 혹은 '모니터 시민'(monitorial citizenship)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Dalton, 2009; Schudson, 1999). 이에 따라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적 이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적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자발적 정치참여가 증가되고 있다(김용철, 2010). 즉, 정보화 현상의 가속화는 지역사회의 분권과 자율을 촉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생각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화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다원주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압력은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며, 로컬리티의 전반적 혹은 부분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모든 로컬리티가 동일한 압력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로컬리티는 일정한 장소적 공간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과 경험·문화와 정체성·고유한 행위규범 및 사회관계가 제도화되고 내면화된 구체적인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로컬리티 구성원들은 로컬 특유의 사고와 행동방식 그리고 정치적 선호를 발전시킨다. 바로 이 역사성은 지역민의 인식과 행태를 규율하고, 공동체적 협력행위(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정준호, 2009).

그러나 로컬리티는 결코 가치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또한 항상 고정불변으로 남아있는 정태적인 존재도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실천적 행동이 접합되고 내외부적으로 소통·교류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로컬리티가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구체적으로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은 행위자 차원에서 구성원의 인식 및 행태적 차원의 재조정, 행위자 차원의 재조정의 결과(outcome)로서 등장하는 새로운 정책적 전망 및 정책 내용의 출현, 정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출현 그리고 정책적 전망 및 내용을 매개로 행위자 차원과 거버넌스 차원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수반한다.

먼저, 행위자 차원에서 변화의 압력은 지역민들의 가치체계 및 행태의 변화를 자극 촉발한다. 즉, 변화의 압력은 로컬리티를 구성하는 지역민들 사이에 상존하는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관계 및 갈등을 점증적으로 증폭시킨다. 그 결과 민주화와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의 외적 압력과 로컬의 역사성이라는 내적 조건 간에 이질적 사고와 인식이 발생하며, 이는 다원적이며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생성시킨다. 옛 질서를 유지하고 기존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집단과 변화의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관계를 모색하는 집단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로컬리티 구성원 간에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발생하며, 이는 행위자적 차원에서 사고의 전환을 촉발시킨다.

둘째, 구성원의 인식 및 태도의 전환은 새로운 정책적 전망과 정책내용의 변화를 야기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출현은 그에 걸맞은 정책 네트워크와 의사결정과정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다시 거버넌스 차원의 로컬리티의 변화를 유발한다. 즉,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가 재정립되고 정책이슈를 둘러싼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질서가 재구성되며, 구성원의 사회관여 및 정책 활동을 둘러싼 규칙 및 규범 그리고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의 공식·비공식적 권위 구조가 재정렬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로컬리티의 속성 변화에 토대를 둔 다양한 실천들은 지역사회의 상위단위(예를 들어 국가 및 국제사회) 및 수평 단위(예를 들어 타 지역사회)와의 연계관계의 재조정을 불러온다(Cox and Mair, 1991).

셋째, 거버넌스 차원의 새로운 로컬리티는 행위자 차원의 로컬리티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수반한다. 새롭게 재편된 거버넌스 차원의 로컬리티는 정책적 전망 및 내용을 매개로 새롭게 형성된 행위자 차원의 로컬리티로부터 수정 및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또 다른 거버넌스 형태를 지닌 로컬리티가 등장할 수 있다. 즉, 로컬리티는 정책을 매개로 행위자 차원과 체제적 차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거쳐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된다.

이른바 이념형(ideal type)으로서 거버넌스 차원의 로컬리티 유형은 대체로 그림 2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Hysing, 2009: 315; 김용철, 2010: 212-213). 먼저 A(명령과 통제)는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지방)정부-주민 관계로, 정부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에 자신의 의지 및 선호를 강요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B(위임을 통한 통치)는 공공관리의 경제적 효율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자신의 공적 기능을 아웃소싱(outsourcing), 민영화(privatization), 하청(contracting-out) 등의 전략을 통해 비정부 행위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비정부 행위자들이 정부의 대리인(proxy) 기능을

수행하는 통치형태이다.

A와 B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이 엄격히 구분되는 정부 중심적 통치형태라고 한다면, C와 D는 주민 중심적 통치형태이다. C(장려와 영향력)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비정부 행위자들의 관리(private governing)를 장려하고 가능케 하는 형태로, 정부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창출과 실천에 있어 간접적 조종(steering at a distance) 혹은 시민관여의 장려자(enabler of civic engagements)의 역할을 담당한다(Kooiman, 2003: 79; Sirianni, 2008: 제1장 참조). 즉, 정부는 사적 통치의 제도적 프레임 및 기본 규칙과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비정부 행위자들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치적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비정부 행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예를 들어 정책 중재, 정책조정, 정책정당성의 부여)을 발휘하는 형태이다. 이때 정부는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민간 부문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D(정부 없는 통치)는 비정부 행위자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관리(self-governing)를 위한 사적 규칙과 규제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형태이다. 이는 비정부 행위자들이 정부의 권위 및 지도에 저항하거나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여 정부의 개입 능력이 매우 제한적일 경우에 등장하는 형태이다.

정리하면, 로컬리티 재구성 과정은 우선 행위

	권 위	거버넌스
정부	<b>A</b> Command & Control	<b>C</b> Enable & Influence
비정부	<b>B</b> Governing through Delegation	<b>D</b>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그림 2. 거버넌스(governance) 차원의 로컬리티 유형

자 차원의 인식 및 태도의 재조정을 수반하고, 다음으로 구성원들의 인식 및 행태의 변화는 정책적 전망과 정책내용의 변환을 동반하며, 이어서 정책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네트워크 및 의사결정과정(거버넌스)을 생성한다. 그리고 넷째 행위자 차원의 로컬리티와 거버넌스 차원의 로컬리티는 정책적 효율성과 정책결과를 매개로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로컬리티의 진화 및 변동이라는 순환과정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순환적 과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전통과 규범, 문화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을 생성시켜 로컬 수준의 새로운 역사성을 부여하며 로컬의 역사성은 다시 행위자 및 거버넌스 차원의 재구성을 촉진 혹은 제약한다.

#### 4. 결론: 요약 및 함의

이 글은 근래에 들어와서 다양한 변화의 압력을 받아 온 지역의 대응 양상 및 전략 그리고 그 결과로서 등장하는 지역의 변동 및 재구성 과정을 ‘로컬리티’(locality)의 재구성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로컬리티 개념을 원용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로컬리티의 변동 혹은 재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리티를 둘러싼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가 지닌 이론적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과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로컬리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 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는데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혼돈 및 불명확성 그리고 방법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초기 연

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를 변화의 압력이 수동적으로 수용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변화의 구체성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결과 기존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모든 지역사회가 그 자율성과 특수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진화 혹은 수렴해 가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대단히 취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로컬리티’라는 용어의 개념적 모호성과 다의성을 극복하기 위한 재개념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향후 로컬리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분석틀을 탐색하였다. 우선, 로컬리티는 국가적 그리고 지구적 수준의 영향력과 로컬 수준의 사회적 관계망 간의 상호작용이 생성해 낸 구체적 결과물로 규정하고, 로컬리티는 글로벌-내셔널-로컬이라는 다중적 스케일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근간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구축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로컬리티는 광범한 사회적 층위들과의 연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및 재형성해가는 잠정적이고 유동적 존재로, 로컬리티의 구성 및 재구성은 다중적 스케일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일정한 공통의 장소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사회구조이자 로컬 차원의 사회구조적 이해관계가 제도적 차원으로 구체화된 로컬 거버넌스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로컬리티는 두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행위자적 차원에서 내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집합적 행위체이며, 거버넌스 차원에서 나름의 규범과 권위구조를 지닌 사회 관계적 질서체(로컬 거버넌스)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은 크게 다양한 층위에서 발현되는 구조적 압력과 로컬의 사회적 관계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로컬 거버넌스 간의 함수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는 외부의 변화 압력에 의해 촉발된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은 다양한 개별 혹은

은 집단 행위자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거치며, 그 결과는 행위자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인식과 가치, 태도, 사회적 관계의 변화 및 거버넌스 차원의 사회관계적 질서로 구체화되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궁극적으로 로컬에 새로운 역사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대체시키는 역동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컬리티에 관한 재개념화에서 출발하여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의 모색으로, 그 동안 로컬리티의 지속과 변화와 관련한 연구에서 보여준 로컬리티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해소하고, 아울러 로컬리티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서 어떤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이러한 개념과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외부의 변화압력에 따른 로컬리티의 지속과 변화, 재구성 과정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례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동시에 이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로컬리티의 재구성 과정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할 것이다.

## 주

- 1) 이들 연구 프로젝트는 모두 완료되어 결과 보고서가 출간되었다(예를 들어 Cooke, 1989; Harloe *et al.*, 1990).
- 2) '로컬리티'라는 용어는 영국의 사회학자 어리(Urry)가 학술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컬리티 연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기든스(Giddens)는 이와 달리 지역 사회 혹은 지역공동체를 의미하는 '로케일'(locale)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기본적으로 스케일의 관점에서 로컬리티를 이해한다는 것은 글로벌 스케일에서 보면 국가 단위가 로컬일 수 있고, 국가 단위에서는 지역 단위가 로컬일 수 있다. 즉 로컬의 단위는 상대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구동희, 2010,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논쟁," 국토지리학회지 44(4), pp.509-523.
- 김영화·김태일, 2012, "대구경북학의 모색: 다른 지역학이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5(1), pp.117-147.
- 김용철, 2010, "네트워크 사회와 정부-시민관계," 오토피아 25(2), pp.103-130.
- 김종철·최장집(외), 1991, 지역감정연구, 서울: 학민사.
- 박규택, 2009, "로컬리티 연구의 동향과 주요 쟁점," 로컬리티 인문학 창간호, pp.107-143.
- 박배균, 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의 4가지 공간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pp.616-634.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09,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서울: 혜안.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0a, 로컬의 문화지형, 서울: 혜안.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0b,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 서울: 혜안.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0c, 탈근대·탈중심의 로컬리티, 서울: 혜안.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3a, 로컬의 일상과 실천, 서울: 소명출판.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3b, 선망과 질서의 로컬리티, 서울: 소명출판.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3c, 이주와 로컬리티의 재구성, 서울: 소명출판.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3d, 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서울: 소명출판.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3e, 차이와 차별의 로컬리티, 서울: 소명출판.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3f, 창조성과 도시, 서울: 소명출판.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3g, 포섭과 저항의 로컬리티, 서울: 소명출판.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 2013h,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로컬리티, 서울: 소명출판.

- 유승희, 2010, “서울학의 현재적 의미와 한계,” *도시인문학연구* 2(2), pp.139-171.
- 전우용, 2002, “서울학연구소의 성과와 과제,” 부산발전연구원 개원 19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부산학 연구의 방법과 과제.
- 정준호, 2009, “산업특화가 지역경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pp.494-506.
- 최영진, 1999, “한국지역주의 논의의 재검토: 정치적 정체성과 동기부여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3(2), pp.135-165.
- 한주성, 2012, “한국경제지리학 접근방법의 체계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pp.457-463.
- 황진태·박배균, 2014,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pp.1-27.
- 森川 洋, 2004, *人文地理學の發展: 英語圏とドイツ語圏との比較研究*, 東京: 古今書院, pp.166-175.
- Agnew, J. A., 1987, *Place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Oxford: Blackwell.
- Cloke, P., Philo, C. and Sadler, D., 1991, *Approaching Human Geography: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Theoretical Debates*, London: Paul Chapman, pp.51-53.
- Cochrane, A., 1987, “What A Difference The Place Makes: The New Structuralism of Locality,” *Antipode* 19(3), pp.354-363.
- Cooke, P., 1985, “Regional Restructuring: class politics and popular protest in South Wales, Emilia and Provence,” in G. Rees (ed.), *Political Action and Social Identity: Class, Locality and Culture*, London: Macmillan.
- Cooke, P., 1989, *Localities: The Changing Face of Urban Britain*, London: Unwin Hyman.
- Cooke, P., 1990, “Locality, Structure, and Agency: A Theoretical Analysis,” *Current Anthropology* 5(1), pp.3-15.
- Cox, K. R. and Mair, A., 1989, “Levels of Abstraction in Locality Studies,” *Antipode* 21(2), pp.121-132.
- Cox, K. R. and Mair, A., 1991, “From Localized Social Structures to Localities as Agent,”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pp.197-213.
- Dalton, R. J., 2009, *The Good Citizen: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shaping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SAGE.
- Danielzyk, R. und Oßenbrügge, J., 1993, “Perspektiven geographischer Regionalforschung: Locality Studies and regulatistheoretische Ansätze,” *Geographische Rundschau* 45, pp.210-216.
- Duncan, S. and Savage, M., 1989, “Space, Scale and Locality,” *Antipode* 21(3), pp.179-206.
- Glückler, J., 1999, *Neue Wege geographischen Denkens: Eine Kritik gegenwärtiger Raumkonzeptionen und ihrer Forschungsprogramme in der Geographie*, Frankfurt: Verlag Neue Wiss.
- Harloe, M., Pickvance, C. G. and Urry, J., 1990, *Place, Policy and Politics: Do Localities Matter?* London: Unwin Hyman.
- Herod, A., 2011, *Scale*, New York: Routledge.
- Huntington, S.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Hysing, E., 2009,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The Private Governance of Forest Certification in Sweden,” *Public Administration* 87(2), pp.312-326.
- Kooiman, J., 2003, *Governing As Governance*, London: SAGE.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s of Labour*, London: Macmillan.
- Massey, D., 1991, “The Political Place of Locality Studi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 pp.267-281.
- Massey, D., 1993, “Questions of Locality,” *Geography* 78(2), pp.142-149.
- Newby, H., 1986, “Locality and Rurality: the Restructuring of Rural Social Relations,” *Regional Studies* 20, pp.209-215.
- Nye, J. S. Jr., 1997, “Introduction: The Decline of Confidence in Government,” in Nye Jr. J. S., Zelikow, P. D. and King, D. C.(eds.), *Why People Don't Trust*



- Government*,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pp.1-18.
- Nye, J. S. Jr., 1999, "technology.gov: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mocratic Governance," in Kamarck, E. C. and Nye, J. S. Jr.(eds.), *democracy.com?: Governance in a Networked World*, NH: Hollis Publishing Company, pp.1-18.
- Savage, M., Barlow, J., Duncan, S. and Saunders, P., 1987, "Locality Research: The Sussex Programme on Economic Restructuring, Social Change and the Loca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Social Affairs* 3(1), pp.27-51.
- Schudson, M., 1999, *The Good Citizen: A History of American Civic Life*, New York: The Free Press.
- Sirianni, C., 2009, *Investing in Democracy: Engaging Citizen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mith, N., 1987, "Dangers of the Empirical Turn: Some Comments on the CURS Initiative," *Antipode* 19(1), pp.397-406.
- Taylor, P. J., 1982, "A Materialist Framework for Political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7, pp.15-34.
- Urry, J., 1983, "De-industrialisation, Classes and Politics," in King, R.(ed.), *Capital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교신: 안영진,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화: 062-530-2686, 이메일: yjahn@chonnam.ac.kr
- Correspondence: Young-Jin Ahn,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2686, E-mail: yjahn@chonnam.ac.kr

최초투고일 2014년 5월 3일  
수정일 2014년 5월 17일  
최종접수일 2014년 5월 24일